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2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 모후	(화) 4:15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214-597-5553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렌,맥키니	469-370-0422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구리아	(셋째 일)1:00 PM	캐롤튼	213-344-9129
구역장회의	(첫째 토) 3:00 PM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썰기도	(2,3주일)10시미사후	코펠	817-946-9168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청년회	(토) 6:00 PM	N. 코펠	949-616-589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자비의 모후	(토) 3:0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00 PM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817-919-3050
대건회,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469-922-4339
하상회,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 후	W,프리스코	678-687-8273
이나시오회,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00 PM	E. 플레노	214-205-3220
사도회,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이나시오CLC	(월,수,목) 8:00 PM	W. 플레노	818-590-3442
토마스회,30대	(셋째 토) 4 PM			재속복자회	(셋째 일) 4:00 PM	리차드슨	770-807-4984
				성찬봉사회	(첫째 금) 8 PM, Zoom	밸리랜치	214-470-8747

교우 업체 소개

정관장 홍삼 달라스 직매점	NOVA DENTAL Las Colinas	Primary One 건강과 아름다움, 레이저, 건강검진 가정전문의, 입원전문의	벨라 헤어살롱 스킨케어
캐롤튼 214-483-3838 24hr 469-774-9669	김하운 소피아 DDS 214-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BO Na Lee, MD 214-656-5388 (문자 가능함) 6957 W Plano Pkwy #2300, Plano	헤어 (수지원장) 972-800-1063 스킨 (아그네스) 510-449-6933 첫 방문 남자 헤어컷 \$15 11434 Emerald St. #107 Dallas
안나 케어 은혜복지센터	Reading Town 뉴욕본사의 40년 교육 노하우 학생수준별 Reading & Writing 프로그램	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 주택, 상가리스	E&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972-506-0177, 토(Sat 운영) (노인복지 전문기관, 자원봉사가능) KAS/비영리 한인가족지원센터 www.annacaretx.com	프리스코점 945-276-0392 www.readingtowntown.com 8018 Preston Rd. Ste 505, Frisco	남현주 마리아 972-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	한정관 요셉 972-955-6156
C2 education "K-12, SAT/ACT, AP, Essay"	수라 SURA Korean Bistro	BMW of Dallas Center of Excellence Kate Kim김정인 카타리나	조앤박부동산 주택전문, 새집전문
이수미 한나 469-231-2002 Flower Mound Center	이상학 스테파노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새차는 BMW 중고차는 Any Brand 480-465-3853 bmwofdallas.com	박성아 소화테레사 214-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
살롱 드 아르떼	MDMartin 스테핑/인력관리	Shine Learning Center 미술 I 영어 I 수학 I 테스트 준비 I 스템	Bright Minds Preschool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 972-704-5639 미용실 (시온마켓 2층)	Mark Lee,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	June Kim 972-245-7914 Carrollton Campus	2 to 5 Years old (유치원: 월~금, 생일파티: 토/일) 임은희 요안나, 682-417-4455
북나라 Book Nara_7 days open	Greenhill Insurance Business I Auto I Home I Medicare	맑음 헤어살롱	O K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주택 / 상업용)
972-245-2665 캐롤튼 H마트 몰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	972-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만 받습니다.	대표 이정기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PARISH

www.dallaskoreancatholic.org / office@dallaskoreancatholic.org

대건
주보

2026년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제 260038호
--------------	--------------------------	-----------

오늘의 전례	성당정보
--------	------

[제1 독서] 에제키엘 18,25-28 [화답송]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 독서] 필리피서 2,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1,28-32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생활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587	482	521, 943	615

미사 시간 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성사 안내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 5분전
		일요일	10:00 AM 12:00 PM (영어) 3:00 PM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평일	화·목	7:30 PM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 신청
		수·금	10:00 AM		성시간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장명화 수산나 김민혜 연희마리아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교육정보	
예비자교리	일 11:00 AM-12:15 PM
성경공부반 (남성)	수 7:00 PM 이요한 부제
성경공부반	수 11:00 AM 장수산나 수녀
성경공부반	목 6:10 PM 장수산나 수녀
성경공부반	수 11:00 AM 박비비안나
성경100주간	금 8:00 PM, Zoom
거룩한 독서	화 10:00 AM, Zoom
거룩한 독서	수 8:00 PM, Zoom
주일학교 Youth	일 10:00 AM-11:15 AM
한국학교	토 9:30 AM - 12:30 PM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지성과 이성, 감성과 오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사람의 손은 짧지만, 도구를 만들어 손이 닿는 공간을 넓혔습니다. 칼과 화살과 창을 만들었고, 호미와 쟁기와 낫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도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만 소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글을 통해서 시간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플라톤의 글을 읽고 공자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불경과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전 사람들의 지혜와 신앙을 만납니다. 그렇게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사람의 질문에 답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공지능에 물어보곤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사람과 비슷한 몸을 만들어 주면 ‘휴머노이드’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휴머노이드를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집과 문, 계단과 의자, 자동차와 공장, 수많은 도구가 모두 인간의 몸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을 도우려면 결국 인간의 모습을 닮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만들면서 사람을 닮게 했다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굴이나 몸이 하느님과 비슷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철학과 문학의 눈으로 보아도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섭니다. 인간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이 옳은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고, 한 편의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진리와 아름다움, 사랑과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향한 네 가지 씨앗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사단(四端)’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사양지심’, 잘못과 악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입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빵을 나누어 주셨던 모습에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에는 사양지심이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을 꾸짖고 위선을 질책하신 모습에는 수오지심이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라고 하시며 올바른 길을 식별하도록 하신 말씀에는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맹자가 말한 이 네 마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당신 모습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특별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기억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은 여러 이유로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피해 떠난 사람이 있고, 박해를 피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난 사람도 있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낯선 나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모두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본당도 생각해 보면 ‘이주민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우가 고향을 떠나 이곳 달라스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낯설었을 것입니다.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주민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낯선 곳에서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너희가 나를 따듯이 맞아들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당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과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낯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어 실천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난민의 아픔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 하느님의 모습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9/11까지 묵주기도집계	127,430단	점심 봉사	울프레야
------------------	----------	----------	------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루치아), 김세길(안드레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옥경(미카엘라), 김연우 제이든(요셉), 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윤(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나시오), 엄찬길(찰스),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카타리나), 이영중(라파엘), 임주희(아벨라), 전용환(요한), 정상옥(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례(데레사), 한재민(야고보), 허순희(젬마)

공 지 사 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과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9/26(토), 9/27(일)

주일 점심식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2차 현금

9/26(토), 9/27(일)은 교구 은퇴 사제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성시간 안내

일시 : 10/1(목)
7 pm 묵주기도 (주관 : 성소 후원회)
7:30 pm 미사, 8 pm 성시간

● 청년부 렉시오 디비나 (한국어)

일시 : 9/26 (토) 5시 미사 후
문의 : 박필우 아브라함 469-556-2029

● 10월 묵주기도 성월 안내

10/3(토)부터 미사 30분 전에 꾸리아 주관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묵주기도 지향
첫째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둘째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셋째주: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넷째주: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 전신자 및 주일학교 전체 화재대피 훈련

일시 : 10/4(일) 10시 교중 미사 중
장소 : 성당 전체

● Pre-K 벤자민반 (3-4세) 모집

수업 : 주일 10시, C111
등록금(1년) : \$100
문의 및 신청 : 전승민 소화데레사
213-598-4778

● 주일학교 학부모 교육

일시 : 10/4 (일)부터 매 주일 10시
장소 : 회의실 C108
교재 : 알고 싶은 가톨릭 신학 II
문의 : 김민혜 연희마리아 수녀

● 성소후원회 주관 수도원 방문 안내

대상 : 청소년 복사단, 주일학교 7-8학년
일시 : 9/27(일), 1:30 pm
장소 : Cistercian Abbey
(3550 Cistercian Road, Irving)
문의 : 박경호 바오로 615-587-5008

● 성소 세미나 안내

본당 출신 사제 · 수도자 양성을 위해 성소 후원회에서 두 번째 성소 세미나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 Fr. Philip Yang, O.S.A.
주제 : Discernment of Talent
일시 및 장소 : 10/4 (일) 1:15pm, 성전
문의 : 박경호 바오로 615-587-5008

● "빛의 자녀" 찬양의 밤 KACTUS

성체조배와 고해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 : 전신자
일시/장소 : 10/10 (토) 7-9pm, 성전
5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식사제공
등록 : QR코드
문의 : 장시준 다니엘
817-891-9382



● 50주년 기념책자 편찬 위원회 안내

1. “청년, 차세대의 목소리” 기고자 모집
본당에서의 신앙과 공동체의 의미, 다음 세대와 미래의 본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20~30대 교우들은 편찬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2. 30~50대 좌담회 참가자 모집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책자에 담을 30~50대 교우 여러분의 신앙안에서 삶과 본당 공동체 생활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및 신청 : 50주년 기념책자 편찬위원회
50thBook.Team@dallaskoreancatholic.org

● 대건회 아우회 안내

일시 : 10/15 (목)
8:30am 성당 출발 - 5:30pm 성당 도착
장소 : Lake Murray Tucker Tower Park
문의 : 박찬병 비오 대건회 회장
972-693-2874

● 재정평의회 알림

본당 재정평의회에서는 본당 소유 부동산 매도 (Residential)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 Texas 주정부 부동산 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교우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기간은 9월 30일(수)까지 입니다.

● 성모회에서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빈 김치병을 주방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순교 성지 순례단 모집

일시 : 2027년 10월 13일 예정
문의 : 한프란치스카 214-701-7688

● 달라스에 암치료차 오셨다가 한국으로 가신 이영섭(비오), 오안선(릿다) 부부께서 감사 인사로 건축현금 \$500, 50주년 현금 \$5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건축현금		교무금							
권상훈(50), 김수용(10)		송승우, 김희성, 정순구, 김갑용, 유안나, 박마르타, 한재민, 강대진(2), 이재훈, 박용성, 조수명, 조영아, 이동호, 정경희, 김철, 강경순, 주재역, 김효원, 백혜란, 강귀창, 장재호, 조귀순, W Jong Shon, Moye Christian, Thomas Lee, Anthony Han, Yuliana Sim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50주년 현금 이영섭, 오안선(500)									
건축 계정	\$120,821.24	건축	\$60.00		교무금	\$3,680.00		주일 현금	\$7,743.00
일반 계정	\$285,365.91	2차 현금			특별현금			주일 총액	\$11,483.00
지나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86 명	수 43 명	목 85 명	금 39 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101 명	10시 600 명	12시 180 명	3시 미사 없음	주일 합계		881 명	